

2008년 5월 13일 메시지

- 목회는 항상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목숨을 걸어놓고 합니다. 그러니 몇 천 만 명이 한사람을 못 당하는 것입니다. 더 잘하면 더 잘 됩니다. 해보면 자꾸 알아집니다. 인간의 힘이 한도 없고 노력도 한도 없고 머리의 잠재능력도 한도가 없습니다. 실컷 써먹어야 됩니다. 실컷 써먹으면 자기도 유익이고 수 백 배 수천 배 유익이 됩니다. 목회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끝이 없습니다. 애들 관리 잘 해주면서 멋지게 마음껏 한번 해보십시오.

- 한명씩 오는 사람들을 아주 천사같이 대해줘야 합니다. 한두 번만 잘 해주면 안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을)처음에는 천사같이 대하고 그 다음에는 머슴같이 대하고 천대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같이 대해줘야 목회가 잘 됩니다. 나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하나 나가면 “나도 죽는다.”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열정적이고 열심이기에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보통 10시간씩 있다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타서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버럭 버럭 빨리 움직이면서 하라는 대로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서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이만큼 해봤으니 잘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자꾸 연구하고 노력하고 끝까지 가서 끝까지 쓰여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예전에 어머니 모시고 단양팔경 구경을 갔었는데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후진하다가 술 받아서 가는 어떤 남자를 쳐서 머리가 깨지는 것을 봤습니다. 한 60살도 안된 남자였는데 그냥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서 “저렇게 죽기 전에 하나님을 알려주고 깨우쳐줘라”는 음성이 들려서 즉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충주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충주회원들 열심히 뛰십시오.

- 관리하면서 “너는 좀 컸으니 관리 안 해줘도 되겠지” 하지 말고 오래된 사람도 신경써줘야 합니다. 보통 이제 오는 신입생들만 신경 씁니다. 말잘 듣고 졸졸졸 따라다니니까요.

- 오래된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그 만큼 튼튼해서 빨리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잡고 하나 되서 움직여 나가야 목회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성인들도 하나 되고 보다 신진도 하나 되고 할 때 그것이 단단히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사람은 이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게 힘들지만 교회는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까? 움직이게 하는 건 쉽

습니다. 쫓아다니나 안 쫓아다니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만 잘 전해도 잘 따라옵니다.

- 열심히 해서 교회를 만들고 또 만들고 자꾸 해나가야 합니다.

- 목사님들 되었으니 이제 노련하게 뛰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노련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지도자가 밑에 사람 시키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뛰어들어야 지도자 따라서 따르는 사람이 뛰어듭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빨리빨리 해결이 됩니다.

-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도자가 밑에 사람 시키면 일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지도자가 항상 먼저 뛰어들고 이같이 본을 보여주고 준비하고 해야 합니다. 연예인들도 맨날 거울 보며 준비하고 예비해서 목숨걸어놓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은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은(지도자) 항상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다 잘 됩니다. 좋은 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좋은 점보다 약점이 많으니 항상 그것을 잘 봐야 합니다. 밑의 사람들은 겁나니까 지도자에게 안 좋은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나 밑의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약점을 고치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안 고치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 백 만명 한다고 기도하다가 혼났습니다. 그렇게 밖에 못 보냐고요. 각종각색으로 고통 받고 가르침 받았는데 그것밖에 못하냐고. 몇 명씩 하면 금방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회원들이 데리고 오는 것이지 지도자가 어떻게 다 끌고 옵니까? 양을 업고 가보십시오. 가다보면 팔이 아파서 놓지 않습니까? 결국 양을 몰고 가는 사람이 자유롭게 해야 제일 많이 끌고 갈 수 있습니다.

- 월명동에 갈 때도 조심해서 잘 다니고 거기 가서 전도도 하고 애들도 데리고 다니십시오. 너무 짝 잡고 무게 잡고 하지 말고 자유롭게 목회를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 보십시오. 자유롭게 해주니 거기 모두 쫓아다니면서 구경하지 않습니까?

-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이기에 지역별로 목회자의 남녀 비율을 잘 맞춰서 해나가야 합니다.

- 평대협하고 잘 지내고 잘 하려다 보면 서로 몸싸움이 있습니다. 축구할 때처럼. 그러나 말씀 나갔으니 싸우지

못하게 하십시오.